

‘지방세 편취 법무사’ 또 있나... 전국서 조사

제주서 농어업인 세 감면특례 악용 첫 사례 적발 후 정부, 모든 지자체에 전수조사 지시... 파문확산 조짐 “제주 외 사례 확인”... 道, 금주 중간조사 결과 낼 듯

최근 농업인 용자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 수천만원 이상 편취한 법무사가 행정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전수조사를 전국 지자체에 지시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위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초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한 전국 최초 사례를 적발, 같은 달 2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A법무사는 일반 B씨의 대출을 의뢰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서류를 제출할 때 C씨의 농지원부를 허위로 제출, 과세기관에 신고할 때 B씨를 농어업인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지방세를 편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일반 대출을 농어업인 용자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둔갑시켜 지방세 50%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A법무사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행안부에 보고했다. 아울러 납세의무자와 함께 채무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관련 위법·부당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건수는 약 8만여 건이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치 자료는 지난 26일 완료했다. 빠

른 이번 주중 중간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등록면허 부족분 전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안부 공문은 제주 외에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이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치 자료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사례 여부에 대해서는 “A법무사 사건은 경찰 조사 중”이라며 “나머지는 전수조사가 완료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韓 정부에 4조원 소송 예고한 버자야 예래단지 좌초, 국제분쟁으로 번지나

최근 ISDS 중재의향서 제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법무부 중심 대응도 본격화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버자야그룹은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 4000억원(직접손해 약 3000억원·일

시국의 법령 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중재의향서를 받은 것은 버자야그룹이 10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이기 때문에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토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가 협업해 이번 버자야그룹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래단지는 지난 2005년부터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법원 인가 처분·토지 수용재결 무효 판단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그룹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지했다며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은범기자

제주 교통안전 성적 전국 도 단위 하위권

국토부, 추진실적 평가 결과 9곳중 8위... 전국 평균 미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교통안전 시행 계획 추진 성과에서 전국 도 단위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18년도 시도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안전시행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전년도 계획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 광역 그룹 9곳에 대한 종합점수 결과 78.2점을 얻어 8위를 기록했다. 1위는 전남(90.2점)이었으며, 9위는 충남(73.6점)이었다.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인구·자동차·도로연장 대비 주요 시설개선 부분에서 제주는 8.7건으로 5위를 얻었다. 전국 평균 9.6점보다 1.1점 낮다.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건수는 18건(6위)으로 도 단위 평균(36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구·자동차·도로연장 대비 교통법규 위반 단속실적도 75건으로 최하위다. 전국 평균은 346건이다.

2017년 대비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2.5%로 도 단위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7.6%다. 단, 시도별 교통문화지수에서 정지선 준수율 등을 종합 평가한 운전자 준수율은 86.0%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소진기자



구름모자 쓴 산방산 27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구름모자 산방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강희민기자

열매 못 맺는 황금향, 이유 있었네

농진청, ‘자근’ 발생 확인 “대목 땅위 노출 식재해야”

농촌진흥청은 27일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에 이어 ‘황금향’에서도 수량이 떨어뜨리는 ‘자근’ 발생을 확인했다며 묘목을 생산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수확 시기가 늦은 만감류 품종은 땅자나무 대목(밀나무) 위에 감귤 접수(가지)를 접붙여 묘목을 만든다. 이때 땅자나

무가 아닌 접수에서 나온 뿌리가 ‘자근(自根)’이다. 감귤나무에 자근이 발생하면 꽃과 과일 맺는 양이 줄어 전체 생산량도 줄게 된다.

농진청 조사 결과 이번에 처음 자근이 발생한 황금향 나무는 나무 세력이 강해지고 주간부(원줄기)가 굵어지며, 꽃 맺음(착화)과 과일 맺음(착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한라봉(부지화), 천혜향(세토카), 레드향(감평), 황금향(에히메28호)이 우리나라 전체 만감류

품종(3,932ha)의 91.8%를 차지하는 만큼, 만감류 묘목을 생산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묘목을 만들 때 접목 높이를 땅 위 6~10cm 높여져 접을 붙이고, 묘목을 옮겨 심을 때도 대목이 땅 위로 6~10cm 가량 충분히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자근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자근을 원줄기(주지)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 기계톱 등을 이용해 잘라낸다. 잘라낸 부위에는 도포제를 발라 상처 부위가 2차로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내달 28일 개막

20여개국 1600여명 참석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를 주제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 주관, 제주크루즈산업협회,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ACTA)가 협력하는 국제행사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20여개국 크루즈관계자 1600여명이 참석해 크루즈 산업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 오프닝세션에선 ‘아시아 관광산업과 크루즈산업의 동반성장 전략’을 주

제로 국제 크루즈선사 경영자 발표이 이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3개 전문세션이 운영된다.

국내 크루즈 연관 산업육성과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는 대폭 강화된다. 크루즈산업 관계자와의 교류확대를 위한 ‘크루즈 네트워크의 밤’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크루즈선사-여행사-지자체-관광지-선박공급업체 간 상호 매칭하는 비즈니스 상담(B2B)을 통해 관련업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크루즈포럼 홈페이지(<http://www.asiacruiseforum.com>)에서 8월 16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제주금연지원센터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내가 과연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여성, 대학생, 위기청소년,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 여성** 만19세 이상의 성인 흡연자(임산부 포함)
- 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만9~24세 청소년 흡연자
- 대학생**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 중 흡연자(대학원생 포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흡연자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소규모사업장(300인 미만)에 근무하는 흡연근로자

- 이용안내** 평일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장소** 제주도 내 대상자가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합니다.
- 신청** : 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 SNS
- 지원** 상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 등록 후 6개월간 사후관리
- 문의** 064-758-9030, 010-8814-9030

4박5일 무료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가자 모집

- 대상** -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2회 이상의 금연 실패 경험자
- 흡연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 흡연 지속자

- 날짜** - 월 1회이상, 수요일~일요일(요일 고정)
- 2019년 7월 10일~14일 / 7월 24일~28일 / 7월 31일~8월 4일 / 8월 21일~25일 / 8월 28일~9월 1일 / 9월 4일~8일
- *상기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시모집입니다.

- 캠프특전**
 - 흡연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폐CT 포함)
 - 금연약물요법(니코틴패치, 껌, 경구용 약물 등) 제공
 - 생활한복,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제공
 - 전문적 금연치료와 유지를 위한 개별심리상담과 집단심리상담 제공
 - 금연 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주도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5층 제주금연지원센터
 - 전화: 064-758-9030 / 010-3068-9030
 - *회기당 선착순 10명 제한입니다.

일 정 표 (예)					
요일/시간	1일차(수)	2일차(목)	3일차(금)	4일차(토)	5일차(일)
08:00-08:30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조식/ 바이탈 체크/	조식/ 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 바이탈 체크
08:30-09:30		전문상담 및 약 처방	담배가 주는 많은 것들	그룹동기 강화상담Ⅳ	사후관리 안내 및 개별 내소 예약 상담, 보조제 처방
09:30-10:00		금연에도 약이 있나요?			나의 몸을 건강하게
10:00-10:30			요기명상/ 세로토닌 워킹/ 힐링테라피	수료식	
10:30-11:00					
11:00-11:30		중식 및 휴식			
11:30-12:00		중식 및 휴식			
12:00-14:00		건강검진 & 심리평가	나의 체력 알아보기	금연캠프 노하우 공유 (캠프 수료자)	제주금연 지원센터
14:00-14:30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휴식	휴식	
14:30-15:00					
15:00-15:30	금연 한다는 것	스트레스관리	휴식		
15:30-16:00				금연 한다는 것	
16:00-16:30	금연 한다는 것	스트레스관리	휴식		
16:30-17:30				금연 한다는 것	
17:30-18:30	금연 한다는 것	스트레스관리	휴식		
18:30-20:00	금연 한다는 것	스트레스관리	휴식		
20:00~	금연 한다는 것	스트레스관리	휴식		

*프로그램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